



아모레퍼시픽, 인도 청년 자립·진로탐색 지원

아모레퍼시픽이 인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진로 탐색을 돕는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0일 인도에서 '밋 유어 뷰티 아카데미' 첫 현지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도 델리 수도권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 국제협력단과 협력해 진행됐다.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충남 자립준비청년에 1억 기탁

애경산업은 충남도청에서 충청남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충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3차년도 전달식을 열고, 총 1억 원을 지정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왼쪽부터) 충청남도새마을회 성낙구 회장, 애경산업 김상준 대표, 충청남도 박수현 도지사,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병설 사무처장, 보통 나눔봉사단 장지영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애경산업



조인호 기계설비협회 명예회장, 5000만원 기부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명예회장이 기계설비 업계 발전과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5000만원을 기부했다. 기계설비협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기계설비회관에서 조 명예회장의 '기계설비 발전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협회



LG헬로비전, 자립준비청년 사회 정착 돕는다

LG헬로비전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장을 돕는 '2026 헬로, 동행 자립캠프'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이번 캠프는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청년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긍정적인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LG헬로비전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

하나금융그룹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전 그룹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3일 명동·강남사육을 시작으로 14일 여의도사육, 30일 청라사육까지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나금융그룹

장인화, '2027 세계철강협회 정기총회' 서울 유치

〈한국철강협회·포스코그룹 회장〉

인도 뉴델리 회원사 회의서 발표
2005년 이후 22년 만에 서울 개최
저탄소 전환·글로벌 협력 등 논의

장인화 한국철강협회장이 2027년 세계철강협회 정기총회의 서울 유치를 이끌어냈다.

14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세계철강협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회원사 회의에서 2027년 총회 개최지로 서울을 공식 발표했다.

매년 10월 열리는 세계철강협회 총회는 글로벌 철강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여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다. 서울 개최는 2005년 이후 22년 만이다.

장인화 회장은 서울 총회 홍보 영상에 직접 출연해 세계철강협회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했다.

이번 총회 유치는 한국 철강산업의



11일(뉴델리 현지시간),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과 JSW그룹 사잔 진달 회장이 면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조강 생산량 6223만톤으로 세계 6위, 1인당 철강 소비량 844kg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주요 수요산업을 뒷받침해 온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보여

주는 지표다.

한국 철강업계는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열

SK이노,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확대

컨터시 정부, 맹그로브 등과 '맞손'
2030년까지 200ha 조성 목표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을 확대해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사회 상생을 함께 추진한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3일 베트남 컨터시 정부, 현지 사회적기업 맹그라브(MangLub)와 맹그로브 숲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은 베트남 컨터시에 식수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조립지를 관리·보호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베트남에 신규 조성할 숲은 200헥타르(ha)로, 서울숲(50ha)의 4배 규모다.

숲 조성과 관리에는 현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 SK이노베이션은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맹그로브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교육도 진행한다. 협약에 참여한 맹그라



(왼쪽부터) 쩌 응옥 동(Tran Ngoc Tung) 베트남 컨터시 맹그로브 산림관리위원장, 엄상홍 SK이노베이션 CSR팀장, 티 하이 팜(Thy Hai Pham) 맹그라브 대표가 13일(현지시간) 베트남 컨터시 농업환경국에서 '맹그로브 숲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브는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빈롱성에 설립한 사회적기업으로, 맹그로브 생태계 보전과 환경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주민들과 조립지를 관리하면서 생태계 복원 효과도 측정할 계획이다. 전과정평가(LCA) 역량을 활용해 식재 지역의 생물다양성 발자국을 측정하고 복원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원관희 기자 wkh@

서울시교육청, 주도적 진로설계 교육 논의

오는 27일 '서울진로교육포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으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진로 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업을 선택하는 데서 나아가 학생들이 스스로 삶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용산구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4회 2026모두를 위한 서울진로교육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일과 삶이 재편되는 시대, 서울진로교육을 다시 묻다'를 주제로 열린다. 학생들이 자신과 사회의 변화를 이해해 삶과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방향을 논의

한다. 특히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도전과 실행을 통해 가치를 만드는 '창업가정신'을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서울대 교육학과 오현석 교수의 기초 강연을 맡는다. 오 교수는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주제로 강연한다.

'실패를 자산으로, 도전을 진로로'를 주제로 토크쇼가 이어진다. 토크쇼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오교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김효정 교육본부장 등 7명이 참여한다.

참가신청은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포럼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교원과 교육 전문직, 학부모, 진로교육 관계자 등이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소진공,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

인태연 이사장 동참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14일 소진공에 따르면 '사람 살리는 금융'은 불법 금융 피해로부터 국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포용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7월 시작한 공익 릴레이 캠페인이다. 참여자가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 이사장은 한국자선관리공사 정정훈 사장의 지목을 받았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립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 등 금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재기와 회복을 돕는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으로 위기를 겪지 않도록 돕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포용금융 지원 의지를 다졌다.

인 이사장은 캠페인 다음 참여자로 원영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과 고영철 신한중앙회장을 지목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교육부, 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점검 강화

법정 검사 주기 4년 → 1년 단축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점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법정 검사 주기를 기존 4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열화상 장비를 활용한 점검도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학교 태양광 설비 확대에 대비해 점검 체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햇빛이음학교는 교육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학교 태양광 설비를 4년마다 최소 한 차례 이상 점검한다. 이번 협약으로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는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단축한다. 예상 검사비용은 연간 약 20만원이다.

점검 항목도 늘어난다. 기존 법정 검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열화상 측정을 추가했다.

/김수정 기자

인사 ◆전북일보 △ 정치경제부장 이강모 △ 사회교육문화체육부장 강정원 △ 정치경제부 차장 김태경

부음 ▲박찬형씨 별세, 이종완(KBS전주방송총국 편집부장)씨 장인상 = 13일, 전주현대장례식장 101호, 발인 15

일 오전 6시 50분. 063-275-4444
▲최용민(향년 81세)씨 별세, 최인국(경인모터스 근무)·최인(두산건설 전략혁신실장·전무)씨 부친상, 이경희·이은미씨 시무상 = 14일 오전 10시,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6일 오전 8시. 051-893-4444